



2017-66

「사회」

콜롬비아의 신흥 불법무장조직에 의한 강제 실향민 증가

■ 중남미

차경미 HK연구교수
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

💡 주요내용

- (불법무장조직에 의한 강제실향민 증가 우려) 과거 불법무장조직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강제실향민 증가에 대한 우려 고조
- (신흥 불법무장조직의 등장과 활동 재개) 정부와 게릴라 FARC 평화협정 체결 후 신흥 불법무장조직의 등장과 활동 재개
- (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인근 국가와의 반복적인 외교적 분쟁 발생 가능) 접경지역 신흥 불법무장조직의 활동과 강제실향민 증가로 인한 인근 국가와의 반복적인 외교 분쟁 발생 가능

1. 이슈 현황

▶ (불법무장조직에 의한 강제실향민 증가 우려) 과거 불법무장조직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강제실향민 증가에 대한 우려 고조

- 최근 콜롬비아 유력 일간지 엘 티엠포(El Tiempo)는 UN의 공식자료를 인용하여 콜롬비아 정부와 게릴라 간의 평화협상타결 이후 FARC 무장해제 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불법무장 조직 활동에 의한 강제실향민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함¹⁾.
 - 언론은 게릴라 활동의 주요 거점지역이었던 노르테 데 산탄데르 (Norte de Santander)주 티부(Tibú)같은 중소도시에서 96가구가 강제실향상태에 놓여있음을 우려함.
- 정부와 게릴라 간의 평화협정체결로 FARC 무장해제 과정에서 일부 잔존세력에 의한 갈등은 표면화되었으며 과거 주요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조직의 등장이 가사화되고 있음.
 - 강제실향민은 과거 마약범죄 그리고 불법무장조직 거점지역과 관련을 맺고 있으며 신흥 불법무장조직이 활동하고 있는 지역에서 배출되고 있음.
- 콜롬비아 고등검찰청은 티부(Tibú)와 테오라마(Teorama) 지역에서 발생한 강제실향민 실태 파악을 위해 2월 17일 조사반을 파견함.
 - 테오라마의 베야 비스타(Bella Vista)와 카뇨 토마스(Caño Tomas) 마을에서 43가구 그리고 티부의 라 가바라(La Gabarra) 지역에 53가구가 강제실향상태인 것으로 파악되었음.
 - 강제실향은 원주민 공동체(Sahpada, Brubuncania, Ocababuda, Suerera)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음.
 - 테오라마지역 시장 헤수스(Jesús Leid Montagut)는 관할지역에서 강제실향민이 배출된 것은 인정하지만 신흥 불법무장조직 활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함.
- 라 가바라 지역은 신흥 불법무장조직에 대한 지역민의 공포가 확산되고 있으며 과거 무력분쟁의 중심지였던 베네수엘라와 접경을 형성하고 있는 노르테 데 산탄데르 주의 카타툼보(Catatumbo)에서도 우려가 고조되고 있음.

1) 콜롬비아 국내 유력 일간지 el Tiempo(2017년. 2월 17일). (검색일: 2017년 2월 18일)
<http://www.eltiempo.com/colombia>.

2. 원인과 분석

❖ (신흥 불법무장조직의 등장과 재활동) 정부와 게릴라 FARC 평화협정 체결 후 신흥 불법 무장조직이 등장함.

- 2011년 집권한 산토스(Manuel Santos) 대통령은 2012년 10월 FARC와의 협상개시를 공식 선언한 후 장기 내전 종식을 위한 평화협상을 진행하였음.
 - 그러나 정부와 FARC의 평화협정으로 무장해제된 전직 불법무장조직 출신의 조직원으로 구성된 신흥세력이 과거 활동지역을 중심으로 등장하여 강제실향민이 재양산되고 있음.
- 2000년대에 접어들어 콜롬비아의 강제실향민 증가는 미국이 콜롬비아 정부를 지원하여 추진한 對 마약-게릴라정책인 ‘플랜 콜롬비아(Plan Colombia)’와 이를 바탕으로 힘에 의한 대 게릴라정책을 추진한 우리베(Álvaro Uribe: 2002-2010) 정권의 국가안보정책 추진결과임.
 - 마약근절을 목표로 콜롬비아 정부가 불법작물재배지인 에콰도르 접경지역 나리뇨(Nariño)주와 푸투마요(Putumao)주에 공중 살포한 제초제는 지역의 황폐화와 함께 농민 강제실향의 주요 계기가 되었음.
 - 게릴라 소탕을 목적으로 정부에 의해 양산된 우익불법 무장조직이 점령지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농민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을 가하여 강제실향민은 급증하였음.
 - 마약 거래의 주요통로였던 아마존 지역이 정부에 의해 폐쇄되자 불법무장조직의 활동거점이 태평양지역으로 이동되었으며, 그 결과 새로운 지역에서도 강제실향민이 증가하였음.
- 우익 불법 무장조직에 의한 민간인 학살 및 강제실향민에 대한 국내외 비판 여론에 직면하자 우리베 대통령은 불법무장조직에 대한 무장해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음.
 - 그러나 2008~2012년 말 군사적으로 훈련되고 능력 있는 전직 게릴라 출신들로 구성된 신흥 불법무장조직이 등장하여 활동하고 있음.
 - 신흥 불법무장조직은 과거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지배권을 둘러싼 무력분쟁을 통해 마약밀거래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.
- 현재 정부와 평화협정을 체결한 불법무장조직 FARC는 마약 재배를 통한 수입에 의존해 왔으며 마약 생산지에 대한 이권은 양보하지 않을 것임.
 - 신흥 불법 무장 조직은 특정 지역에서 경제적 특권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세력 확장 과정에서 무력분쟁 증가로 인한 강제실향이 증가할 것임.

3. 전망과 시사점

❖ (콜롬비아 접경지역 반복적 외교분쟁 발생 가능) 과거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신흥 불법무장조직의 활동으로 인한 강제실향민 증가와 접경지역의 폭력 및 마약 범죄로 인해 콜롬비아는 인근 국가와의 반복적인 외교분쟁 가능성이 매우 높음.

- 접경지역은 폭력과 마약범죄 그리고 농민 토지강탈로 인한 강제실향민 증가로 인근 국가의 외교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짐.
 - 콜롬비아 강제실향민은 안전을 위해 인근 국가 및 평화협정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국경을 넘은 강제실향민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임.
 - 정부와 FARC와의 평화협정체결로 무력분쟁이 소강상태에 머물러 있으나 콜롬비아의 접경지역은 풍부한 지하자원과 험준한 산악지형으로 인해 정부의 통제력이 약해 신흥 불법무장조직 활동의 최적의 지리적 조건을 제공함.
- 베네수엘라 접경지역 카타툼보와 노르테 데 산탄데르주는 과거 마약생산과 밀거래가 형성되었던 곳으로 게릴라와 민병대 간의 빈번한 무력분쟁으로 대량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음.
 - 과거 불법무장조직 활동지역을 중심으로 현재 강제실향민 증가에 대한 우려 확산되고 있음.
 - 콜롬비아의 강제실향민 유입으로 베네수엘라 정부와 외교마찰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.
- 과거 콜롬비아 전체 강제실향민 대부분이 에콰도르와 접경을 형성하고 있는 푸투마요주와 나리뇨주로부터 배출되었음.
 - 우리베 정권이 민병대를 무장해제하는 과정에서 급증한 티부와 라 가바라 지역의 강제실향민이 에콰도르로 유입되어 에콰도르 정부는 자국의 안보를 우려하며 자국 국경수비 강화함.
 - 최근 티부와 라 가바라 지역에서 강제실향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음.
- 신흥 불법무장조직이 접경지역 마약밀거래 지역 통제 및 거점지 확장 과정에서 무력으로 세력을 확대하여 강제 실향민 증가 가능성이 높으며 접경지역은 마약범죄와 무력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보임.
 - 마약 관련 범죄와 게릴라 활동의 지속으로 인해 주민의 안전은 여전히 불안한 상태임.
 - 콜롬비아 정부는 인접 국가와 협력관계 강화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강제실향민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개입해야 함.
 - 신흥 불법무장조직과의 갈등에 직면한 콜롬비아 정부는 강제실향의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통제와 강제실향민 예방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여 실향민 최소화에 대한 노력을 경주해야 함. **EMERICs**

출처

- 콜롬비아 일간지 El Tiempo
- Acción Social 2010년 보고서 " Desplazamiento Forzado en Colombia"
- 차경미, "콜롬비아 국경지역난민증가원인", 2011

💡 EMERiCs의 사전 동의 없이,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본 이슈분석의 내용을 전재하거나 제 3자에게 배포하는 것을 금합니다. 본 이슈분석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저자 본인에게 있으며 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.